

천여년 만에 환생한 세계 最高의 목판

「다라니경」 원판 복원한 吳國鎭씨

묵향 은은한 붓글씨를 바라보면 붓놀림의 힘이 그대로 전해짐을 느낄 때가 있다. 붓글씨가 예술임을 붓끝의 숨결이 살아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오랜 붓글자를 대할 때의 경건함은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는 그러한 交感에 있다.

옛사람의 글씨를 흠송하다 아예 그 글씨를 직접 새기게까지 돼버린 '고인쇄연구소'(청주시 북문로 2가)의 吳國鎭씨(48)는 바로 붓글씨의 이런 매력 때문에 1300년전의 글자를 재현하는 데 인생줄기를 바친 인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원판을 최근 복원한 것은, 지난 86년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 원판 복원 성공에 이은 그의 집요한 장인정신의 결실이기도 하다. "무관심 속에 묻혀가는 고유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가장 값지고 자랑스런 우리 고인쇄문화를 고증, 복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낳게 했다는 것.

1300년전 글자의 재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인쇄문화를 첫 손 꼽는데 주저함은 없을 듯하다. 작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념하는 전시물로 「월인천강지곡」의 주조를 결정한 것도 활자문화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자긍심이 밑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국진씨의 작업은 세계 最古의 목판본을 그가 처음 원판으로 복원해냈다는 점 말고도, 국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화무감각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신공간을 새롭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오국진씨가 원판복원을 성공시킨 이 「無垢淨光大陀羅尼經」(국보 126호, A.D 704~751년)은 지난 1966년 불국사 석가탑 보수작업 도중 탑신부에 봉안됐던 금동제 사리의함에서 발견됐다. 12매의 목판으로 찍어낸 길이 6m 20cm, 너비 6.5cm의 소형 두루마리 형태인 이 불경은 탑속에 봉안해 공덕을 얻기 위한 梵文이 모두 5300여자에 담겨 있다. 그때까지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로 여겨졌던 일본의 「백만담다라니경」보다 약 20년이 앞서 있어 학계의 고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임이 입증됐다.

기록에 의해 고증작업하는 서지학자와는 달리 실증작업으로 밝히는 亥書家로서의 오국진씨는 첫째 다라니경 자체의 번역이 축천후후 집권말기인 704년이고, 둘째 축천후후製字 12자중 4종이 10차례에 걸쳐 사용됐으며, 셋째

미타산이 번역한 2년뒤인 706년 신라 성덕왕 5년에 神睦太后와 효소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라니경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으로 보아 다라니경은 석가탑(751년)이 세워지기 전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1200여년만에 햇빛을 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원본이 발견된 지 30년. 지금은 특수 보존조치에 의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86년 동국대에 영인한 것이 전할 뿐이다. 이미 지난 86년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直指心體要節」하권의 금속활자 원판을 복원했던 오국진씨가 이 다라니경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두루마리의 말린 머리부분이 심하게 부식, 4분의 1 정도가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더이상 파손되기 전에 복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刀意' 보다 '筆意'에 역점을 각자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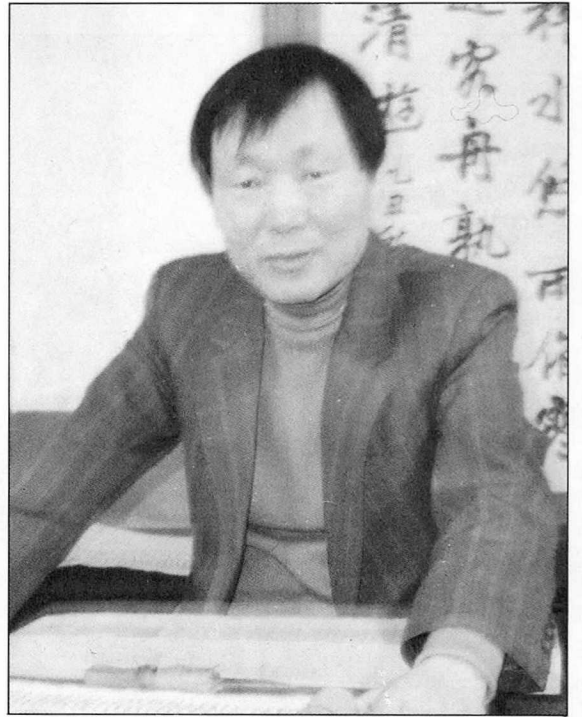
80년 10월부터 다라니경의 복사본을 구하려 뛰어다니고 전문가의 조언으로 훼손부분의 集字 작업이 시작된다. 우선 전체 글자수와 치수를 12판마다 정밀히 측정하고 목판 길이와 손잡이 치수를 계산해 경판도를 완성한다. 완전히 건조된 돌배나무판에 원문 복사본을 뒤집어 붙인 뒤 기름을 먹이면 투명한 한지가 나무판에 밀착돼 글자만 도드라진다. 이것을 예리한 칼과 끌, 망치로 섬세하게 새겨나간다.

오국진씨가 90년 10월부터 꼬박 1년3개월 동안 파고들여 새긴 글자는 모두 12판 5300여자. 남북조시대 글씨풍의 각색성을 보이면서 약간 둥근체인 원필이 가해진 다라니경의 한자 한 획을 돌돌새김할 때마다 1300년전의 숨결을 느꼈을 법하다. 사실 그에게 亥字하는 순간이야말로 시공을 뛰어넘는 글자의 뉘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다라니경의 글자는 古拙性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교는 없지만 예스럽고 소박한 맛이 붓끝, 선에서 풍기죠. 다라니경의 판각은 그래서 '刀意'보다는 '筆意'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亥字마다 심혈을 기울인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훼손부분은 본문중의 글자와 획에서 集字하되 筆勢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부 획이 잘린 곳은 補筆을 가하며 보존된 字는 최대한 근사치를 앞세웠다. 이렇듯 엄밀한 작업기준에도 불구하고 12판의 치수가 일정치 않은 데다 5mm에서 1cm 정도의 작은 글씨를 뒤집어 새기는 작업이 수월할 리는 없다.

지난 86년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의 원판복원 성공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원판이 최근 각서가 오국진씨에 의해 복원됐다. 이 작업은 세계 最高의 목판본을 그가 최초로 복원시켰다는 문화사적 의미 외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무감각증'을 자극, 일반인들의 정신공간을 새롭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



오국진씨.

"異字나 誤字, 古字가 튀어나오고, 종이에 이물질이 묻어 찍힌 글자가 있는가 하면 자혹을 생략한 글자도 나오곤 합니다. 같은 글자라도 본문에 여러번 나올 때마다 크기가 일정치 않은 경우도 있죠. 다라니경이 활자가 아니고 楷本이기 때문에 筆勢는 같지만 同一字型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부딪칠 때 생생한 筆感을 느끼며 서예가 오국진씨의 날렵한 솜씨는 발휘되곤 한다. 1차 영인본과 배접표구본 치수의 비교, 해인사 경판 내용을 토대삼은 훼손부분의 集字 등의 진행작업은 그대로 두툼한 다라니경의 실증자료로 남아 있다. 밀랍주조법으로 진행됐던 「직지」의 복원작업이 5개월이었던 데 비해 섬세하고 방대한 다라니경의 목판 복원은 1년 이상 걸린 것도 판각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오국진씨는 다만 이번의 목판 복원이 "앞으로 수차에 걸쳐 계속돼야 할 刀亥교정의 제1차 교정으로서 인출된 작업"임을 겸손히 밝힌다.

"우리문화의 근원은 고인쇄"

충청도 토박이 선비로 오랫동안 '서예'만 정진하다보니 "붓글씨란 보는 눈을 키우는 것에 그 본디 뜻이 있음"을 알게 됐고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진 옛 글씨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금속문을 배우는 것이 서예의 근본"이라는 철학도 갖게 됐다. 고인쇄가 곧 금속문이라는

생각은 "직접 새겨봄으로써 더 깊이 알자"는 데까지 뛰어올랐다.

오국진씨가 사재를 털어 자신의 호를 딴 '東林書觀'의 문을 열어 '고인쇄연구소' 자리를 만든 것도 옛날 법첩의 정신을 좀더 깊숙이 알고자 함이다. 이 곳에서 우리나라 고인쇄에 관한 그의 관심은 「직지심체요절」의 밀랍주조법에 관한 논문과 「월인천강지곡」의 목활자 혹은 금속활자에 대한 학계의 논란에 대해 각서가의 시각에서 고증해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시키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류문화사에서 언어와 문자 그 이상의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쇄물은 그 언어, 문자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보급, 전파하려는 인류의 수단으로 창안된 것이니 문화의 근원을 알자면 우선 고인쇄부터 찾아보아야지요"

오국진씨가 복원한 목판원본은 올봄에 문을 열 청주 흥덕사지 고인쇄 박물관에 선보이게 된다. 일반인들이 실물을 직접 대함으로써 1300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다라니경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오국진씨의 소망은 도시의 삭막함 가운데 샘물 같은 정서를 옛것에서 찾으려는 현대인의 욕망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듯하다.

— 김지원 기자